

광주시 노로바이러스 빨간불... 최근 5년새 최다

올해 감염 환자 120명 발생
손 씻기 등 예방 수칙 준수
음식 충분히 익혀 먹어야

| 광주시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 | | | |
|------------------|-----|-----|------|------|
| 20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110명 | 86명 | 75명 | 100명 | 120명 |

(2024년 12월7일 기준)

광주시 관내에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4년 49주차(2024년 12월7일)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는 6079명이며, 이 중 광주지역 환자는 120명으로 최근 5년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광주는 △2020년(110명) △2021년(86명) △2022년(75명) △2023년(100명) 순으로 발생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 주로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역 노로바이러스감

염증 환자의 57%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 영유아 환자가 약 43%를 차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혹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 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 후 12~48시간 내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1~3일 후 호전된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증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영유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만큼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을 제한하고, 가정에서도 공간을 구분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해 올바른 절차로 소독해야 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며 "영유아 보육 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환자 발생 때는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기자

전남도, 청소년 '행복성장' 협력 다짐

청소년지도자 소통공감대회
"세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

전남도는 18일 전남청소년미래재단과 남악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2024년 청소년지도자 소통공감대회를 열고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열린 소통공감대회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 전남청소년상담지원협회장, 전남청소년지도자협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남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우수 청소년지도자 유공자 표창, 2024년 전남 청소년지도자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심장을 울려라' 릴레이 강연을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청소년지도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미덕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사를 비롯한 6명의 우수 청소년지도자 유공 표창, 영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 우수 기관이 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소년의 든든한 파수꾼인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전남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자리"라며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전남 청소년이 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8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열린 '2024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소통공감대회'에서 청소년지도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관광업계 위기 극복 돌파구 머리 맞대

외래관광객 급감 대응책 등 논의
지원책 추진·협력 네트워크 확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18일 비상계엄령 이후 급격히 악화된 관광산업 환경 속에서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행사, 숙박업, 관광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관광 위기 상황에 따라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실태 점검 및 대응책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외래관광객 급감에 따른 피해 현황 파악 △관광업계 지원 방안 모색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

장기 대책 마련 △2025년 주요 사업 공유 및 도내 관광시설 지역협력체계 구축 논의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순선 전남도관광체육국장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관광업계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노병하기자

광주시, '빛공해방지 우수기관' 3년연속 선정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평가 결과

광주시는 환경부의 '2024년 빛공해 방지업무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환경부가 2019년부터 해마다 17개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에 대해 3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를 설정해 자치단체별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눈다.

올해 평가에서 광주시는 평가항목 중 신규조명 설치 때 기관·부서 간 협조가 원

활하게 이뤄졌고, 도로조명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빛공해를 사전 예방하는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서울·대구·부산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광주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빛공해 유발 조명 개선,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등 '빛공해 저감 도시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올해 인공조명으로부터 시민 일상을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제3차 빛공해방지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있다.

노병하기자

'빛고을사랑나눔 김장대전' 역대 최대 257톤 판매

1만2천여명 참여 16억5천만원 판매
전년보다 41톤 ↑...공동레시피 입소문

시민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기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역대 최대실적을 거뒀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5일 진행한 '2024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1만2000여명이 참여해 257톤(16억50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판매,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김장대전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실적으로, 지난해 216톤(14억8700만원)보다 19%(41톤)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치 완제품 현장 수령과 택배 신

수량이 지난해보다 40% 급증해 최근 소비경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 등 49개 기관과 단체가 44톤의 김장김치를 취약계층에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올해 김장대전 김치는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축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공동 개발한 조리법으로 광주김치의 맛을 구현하고,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액젓 등을 광주·전남지역에서 공동구매해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특히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현장 버무림 기준, 6만5000원/10kg)과 김치통만 가져오면 손쉽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는 편리성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전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될 만큼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매일 2회 현장검수를 거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도 김장대전 인기에 한몫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는 김장대전 예약이 조기에 완료되고 완제품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품질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앞으로도 광주김치에 대한 시민과 단체들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김장대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김장절 외에도 언제든지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5월부터 11월까지 매일 2·4주에 김치담그기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18.2톤의 김치를 담갔다.

노병하기자

광주시, 글로벌 도약 '명품강소기업' 27개사 지정

금명하이텍 등 신규 11개사 진출
유관기관과 협업 기술 등 지원

광주시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명품강소기업 27개사를 선정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제13기 명품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명품강소기업은 ㈜금명하이텍, 주식회사 다원물산, 다이나믹 디자인, ㈜마루이엔지, ㈜서치, ㈜승광, ㈜아이시스, 주식회사 아토모스, 주식회사 에듀야, 주식회사 이즈소프트, 현대기전테크(주) 등 11개사이다. 재지정된 명

품강소기업 16개사와 합쳐 총 27개 기업이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명품강소기업은 기술혁신, 연구개발 투자, 안정적인 매출 성장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한다.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시가 지난 9월 말까지 공모한 결과, 재지정 공모에 16개사, 신규지정 공모에 17개사가 신청했다. 이들 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 현장평가를 거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지정 16개사, 신규지정 11개사 등 27개사가 최종 지정됐다.

이들 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3년간(2025년 1월1일~2027년 12월31일) R&D(연구개발) 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 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도 지원받게 된다.

노병하기자